

【특집 논문 1】

화이트헤드의 환경 철학을 위한 초석*

최 현 철(중앙대학교)**

【주요어】 유기체 철학, 합생, 인과적 효능, 생태 문명

【요약문】 이 글의 목적은 현재 우리를 둘러싼 환경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로 화이트헤드(A. N. Whitehead)의 유기체 철학이 환경 철학과 환경 윤리적 문제에 적용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그의 유기체 철학을 환경 철학에 적용하여, 그의 환경 철학의 토대를 마련하는 길은 수학과 논리에서 과학으로, 과학과 과학철학에서 형이상학으로 이어지는 화이트헤드의 철학적 여정을 그의 용어대로, 하나의 유기체로 이해하는 맥락에서 출발한다.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은 환경 철학에 적용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논리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아가 환경문제에 대한 실천적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을 충분히 함의하고 있다.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환경 철학과 윤리에 적용하기 위해, 나는 우선 그의 유기체 철학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들을 자연 혹은 환경과 연관한 논의를 전개한다. 또한 나는 이 글에서 화이트헤드의 주저인 『과정과 실재(Process and Reality)』 및 다른 주요 저서들에 등장한 화이트헤드의 자연과 환경 개념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환경운동이 생태 철학 중심으로 옮겨지면서, 어떻게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이 현재의 생태 문명 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지를 서술한다.

* 이 글은 한국 환경 철학회와 화이트헤드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19년 추계 학술발표대회에서 저자가 발표한 ‘화이트헤드의 환경 철학을 위한 초석’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학회에서 발표문에 대한 논평을 해 준 논평자와 그 외 다수의 화이트헤드 전공자들의 조언은 본 논문을 완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 choihc71@cau.ac.kr

I. 과학기술의 발전과 철학의 역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과학기술이 제공해 주는 일과 가능성은 너무 커 그것들을 일일이 나열하기란 사실 불가능하다. 그동안의 과학기술은 수많은 종류의 신제품을 출현시켰고, 기존 제품의 생산과정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특히 농업, 광업 등의 일차 산업에서의 여러 혁신과 더불어 우리 인류가 이용하고 소비할 수 있는 자원과 물품의 범위가 매우 넓어졌다. 더욱이 진보한 과학기술이 인간에게 가장 뚜렷하게 그 존재를 알린 것은 아마 의술(醫術)일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을 증진하게 하고 질병을 치료해 주었고 생명의 연장에 막대한 기여를 했다. 생명 연장은 너무나 가속적이어서 유발하라리가 말한 것처럼, 21세기에 우리는 불멸에 진지하게 도전하고 있는지 모른다.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 종교와 이념은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신성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속적인 존재 위의 어떤 것, 또는 그런 존재를 초월한 무언가를 더 신성하게 여기며 인류는 그것의 가치를 위해 개인의 생명까지도 희생하였다. 이렇게 종교나 이념이 죽음에 꽤 관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과학기술은 삶과 죽음에 대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과학과 문화는 죽음을 형이상학적 신비로 간주하지 않고 당연히 죽음에서 인성의 의미가 나온다고 보지도 않는다. 오히려 현대인에게 죽음은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만 하는 기술적 문제다.(유발하라리, 김명주 역, 2017: 41)”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교통 통신 수단의 발전은 막대한 양의 상품의 유통과 인간의 교류, 전자 통신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자료 처리 능력의 혁신, 급속한 대중 매체의 확산 등 인간 생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었고 심지어 과학기술 덕분에 인간의 우주 진출 가능성도 가까워졌다. 과학은 인류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제공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자연 세계에 대한 지식의 양은 자연스럽게 많아졌고 그만큼 세계를 이해의 폭도 넓어졌다. 그리고 넓어진 세계에 대한 이해는 세계를 조망하는 인간의 관점에 변화를 몰고 왔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인류의 지성사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천체 운동에 대한 이해를 바꾼 지동설과 다윈의 진화론을 뽑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뉴턴 역학은 우리 주위의 물체에서부터 천체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일관적인 우주의 보편법칙이라는 일차적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천상과 지상으로 분리되어 있던 두 세계가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되어 그것을 하나의 세계로 인식하게 하는 세계관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뉴턴 역학에 따라 등장한 세계관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던 개념을 둘러싼 새로운 반성은 이전과는 다른 세계관을 인류에게 제공하였다. 다시 말해 우주의 배경으로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던 절대 시간, 절대공간이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상대적 시간과 상대적 공간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일반 상대론은 우주에 존재하는 물체에 의해 시간과 공간이 규정되는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하는 실마리가 되었고, 양자역학에 이르러서는 그 세계관마저도 완전히 달라졌다. “이중성공 측정에서 있어 대상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측정 결과가 결정되고, 중첩과 측정에서 어느 측정 결과가 나오는지 확률적으로 결정될 뿐 아니라, 심지어 측정한다는 바로 그 사실에 의해 양자 도약(quantum jump) 혹은 양자 상태의 붕괴(quantum state collapse)가 일어나면서 관측대상의 양자 상태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물리학은 인류에게 알리게 되었다. 이것은 양자역학이 다루는 대상이 실재성(Reality)을 지닌다고 말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양형진, 2010: 42-44를 참조).” 사실 고전 세계에 대해 우리가 갖는 실재성의 개념은 아주 견고한 것이며, 서양철학은 그 실재성에 대한 논의가 풍부하였고 그것은 오랜 정신문화의 전통의 하나다. 앞으로 양자역학이 제시하는 그림이 우리가 지니고 있던 기존의 세계상과 다르다면 다를수록 우리의 세계관도 분명 변할 것이다. 그래서 과학철학자인 토머

스 쿤(T. S. Kuhn)이 “서로 다른 패러다임에 종사자들은 세계 구성물에 대한 양상에 대해 서로 다른 조망[세계관]을 가진다. 따라서 패러다임이 변한다는 것은, 그들이 지니고 있던 세계 자체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Kuhn, T. S., 1970: 111).”고 말했는지도 모르겠다. 과학과 기술이 분리되어서든 융합되어서든 그것이 그동안 제공해 준 수많은 가능성과 성공의 이면에는 언제나 수많은 과제와 문제를 동반했다. 미세먼지, 방사성 및 기타 유해성 폐기물, 자동차 및 공장 매연과 폐수, 소음 등 여러 종류의 환경오염과 에너지 및 자원의 고갈, 그리고 자연 훼손, 무기 개발과 경쟁, 그로 인해 파생된 전쟁과 테러의 위협, 도시의 지나친 비대화에 따른 주택 및 교통난, 개인의 사생활 침범 등은 하나같이 모두 우리의 환경을 둘러싼 문제들은 화려한 과학기술 뒤의 어두운 그림자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지금의 과학과 기술이 어떤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그것은 해결하고 과학기술의 진보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문제를 대한다.

2018년 파주에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생태적 전망”이라는 주제로 생태 문명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다. 그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많은 발표문에서는 환경 문제들에 대한 해결하려는 논의들이 수없이 쏟아졌다. 한 발표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류 문명을 개조시키지 않는다면, 과학기술과 환경적 파괴에 의한 인류의 디스토피아는 예상보다 빠르게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김흥기, 2018: 373).”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과학기술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인간 중심적 환경 운동과 교육은 임시방편적이고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인간과 생태계의 화합을 주장하는 탈-인간중심적 종교와 신비주의적 철학은 현 인류문명의 토대가 된 과학기술의 견고함에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기에 현 인류에 닥친 지구의 생태적 문제는 매우 복잡해서 인류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그 성격을 규정했다. 과연 이러한 인류의 문제와 과제들에 대해 과학기술과 세계관 혹은 철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과학기술의 발전 과학

에 의한 세계관보다 기술에 의한 문명적 변화가 그것들에 대한 인문학의 반성이나 철학적 분석을 앞질러 가는 지금, 우리는 어떤 철학으로 환경과 자연을 바라봐야 하고 산적한 환경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가? 사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앞에서 철학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철학의 물음은 사실 왜,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어디로 가야 하나를 근본적으로 고민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 역시 철학에게는 숙명적 과제일 수 있다. 특히 “환경문제는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서 철학의 책무가 더욱더 무겁다. 즉 환경문제를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박길용, 2017 : 68).” 환경문제가 우리의 생명과 죽음과 직결된 문제라는 가정 하에 생명과 죽음을 기술의 발전 문제로 보는 과학기술에 대해 철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현실적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나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화이트헤드(A. N. Whitehead)의 유기체 철학과 그의 형이상학적 담론을 환경 철학과 윤리에 적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은 화이트헤드의 환경 철학의 초석을 만드는 작업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나는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을 환경 철학과 윤리 문제에 적용하여, 그의 입장이 환경 문제에 적절한 실천성을 담고 있는 기존의 환경 철학의 입장을 포섭하고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이것은 수학과 논리학에서 과학으로, 과학과 과학철학에서 형이상학으로 이어지는 화이트헤드의 학문적 여정을 그의 용어대로, 하나의 유기체로 이해한다는 것을 전제하여 화이트헤드의 환경 철학에 대한 논의가 전개됨을 의미한다. 또한 나는 화이트헤드의 환경 철학을 조망하기 위해 우선 그의 유기체 철학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들을 자연과 환경과 연관 지어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주저인 『과정과 실재(Process and Reality)』 및 주요 저서들에 등장한 자연과 환경 개념을 정리하면서 화이트헤드의 입장이 근본적 생태주의 입장과 사회 생태론의 주장과 일맥상통할 수 있음도 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환경 문제의 해결에 하나로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매우

유용함을 밝히기 위해, 왜 그의 환경운동이 생태 철학 중심으로 옮겨지면서 오히려 유기체 철학이 생태 문명 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지를 서술하고 그의 환경 철학의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II. 유기체 철학의 주요 개념과 환경

1. 실체가 아닌 사건으로의 자연과 환경

잘 알려져 있듯이,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철학을 “유기체 철학(Philosophy of Organism)”이라고 불렀다.³⁾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 혹은 과정 철학(Process Philosophy)은 절대 시공간 속에 외부의 어떤 것과도 관계를 가정하지 않고 동일하게 정지해 있는 것으로 존재하고 파악될 수 있는 실체(substance) 중심의 과학적 유물론을 거부하면서 출발한다. 사실 근대 과학의 핵심은 뉴턴 물리학에서 비롯되며, 뉴턴 물리학은 물질과 운동에 기하학적인 분석을 제공했으며 그것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렇지만 화이트헤드에서 있어 과학적 성공의 기초였던 수학과 기하학은 단지 실재를 추상적으로 기술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었다. 다시 말해 시간이 갖는 역할을 사상하는 것이 수학적 이해 방식의 특징인데, 뉴턴 물리학에서 현재의 한 시점에서 입자를 충분히 기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추상화된 형식이라는 것이다(김영진, 2012: 48). 화이트헤드는 이러한 실재에 대한 해석을 “단순정위(simple location)”라 하였다.

3) 화이트헤드에게 유기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과거로부터 ‘완고한 사실의 힘(Power of Stubborn Fact)’으로 계승되고 연결되는 거시적인 의미(Macroscopic Meaning)의 유기체며, 다른 하나는 자신의 ‘주체적 지향(Subjective Aim)’에 의해 과거와는 단절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미시적인 의미(Microscopic Meaning)의 유기체다(화이트헤드, 1991: 128-129). 그리고 이 글에 사용되는 화이트헤드의 개념에 대한 한국어 번역은 오영환의 것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였다.

“단순정위란 물질이 다른 여러 존재에 대해 단순히 그러한 위치 관계를 갖는 것으로 기술될 수 있으며, 그 다른 여러 존재에 대한 유사한 위치 관계로 이루어지는 다른 여러 영역에 관련시켜서 설명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 특성이란 것이다(화이트헤드, 오염환 역, 1989: 81).”

뉴턴의 입자나 플라톤의 이데아, 아리스토텔레스의 순수형식과 같은 것도 모두 단순정위다. 전통적으로 철학에서는 이것을 ‘존재(Being)’ 혹은 ‘실체’라고 하였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실제로 자연이나 환경을 이해하게 된 근간에는 수학적 기술의 극대화된 근대 물리학의 공헌은 매우 크다. 사실 초점적 영역으로 한정되는 ‘순간의 존재’는 완전한 존재라 할 수 없는데도 근대 물리학은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근대 과학적 시각에서의 자연은 당연하게 양화 가능한 객체만으로 인식될 뿐이었다. 근대과학에 따른 자연인식에서 인간은 대상을 외부에서 냉철하게 관찰하면서 실험하는 주체가 되고, 대상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양화 가능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성질을 드러내도록 강요되는 객체다. 이러한 양화와 객체성은 환경과 자연에 대한 태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독일의 가톨릭 철학자이자 윤리학자인 슈페만(R. Spaemann)에 의하면, 고전적 자연 고찰에서 자연은 인간 자신을 포함한 자연적인 존재자들과의 공생적 연관 관계로 해석되었기에 인간은 자연에 대한 지배에 대해서도 지배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근대적 자연지배는 지나치게 절대주의적이고 전체적인 성격을 가졌으며 자연의 자체적인 목적이 부정되면서 인간이 자신의 임의적 목적을 실현해 주는 동질적인 물질이 되었다(Spaemann, R., 1985: 100 ; 박찬국, 2004: 150에서 재인용). 근대 이후의 자연과학은 모든 것, 즉 인간을 둘러싼 모든 환경도 동질적인 물질이기에 당연하게 양화시킨다. 자연과 환경을 자체적인 목적을 갖지 않는 연장적인 사물로 보는 자연관은 자연과 자연 지배를 정당화하게 하며 환경 문제에 작

게나마 남아있던 그 책임과 의무는 결국 사라지게 되고 인간의 물질적 복지를 실현하는데 자연과 환경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또한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 탐구는 기계론적 인과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더 명확한 지식을 얻기 위해 자연 세계를 더 작은 단위의 현상으로 환원(reduction)하여 설명하게 되었다. 예컨대 복잡한 생명현상은 더 작은 단위의 분자 수준에서 설명하고 이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 화학과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려 하였다. 우리가 실재를 충분히 기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학적 형식들은 진공상태에서 단지 패턴의 단면만을 보여줄 뿐이다. 근대 물리학을 동반한 실제 중심의 철학, 즉 화이트헤드의 용어로 표현하면 과학적 유물론은 지금의 환경문제도 언제나 기술적 발전에 해결해야 할, 더욱 정교한 수학적 해석만 등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며 그 역시 과학기술 발전에 의존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인류의 과제인 셈이다. 그렇지만 인간을 둘러싼 환경문제, 생명의 이상 현상, 기후변화, 국제정치 상황 등의 실상은 단순히 환원적이고 기계론적인 과학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현상들이다. 현대의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인류문명이 필연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기이한 부작용들은 과학적 유물론적 세계관으로도 더 이상 설명될 수도, 해결책을 마련하기 벅찬 임계적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화이트헤드는 생명을 실증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근대과학의 세계관을 비판한다. 근대 과학은 자연에서 향유[만족]와 목적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었음을 일찍이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실제 중심의 철학이 “잘못된 구체화의 오류4)”를 범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사건의 중심의 철학을 대안으로 제

4)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잘못된 구체화의 오류”는 근대의 과학과 철학의 밑바닥에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오인하는 오류를 말한다. 그리고 근대 과학과 철학에는 이러한 잘못된 구체화의 오류가 뿌리 박혀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이 오류는 하나의 현실적 존재를 그것의 일정한 사회의 범주를 예증하는 한에서만 고찰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되는 추상성의 정도를 무시하는 데 있다. 이 오류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상세한 논의는 (화이트헤드, 오영환 역, 1989: 84)와 (화이트헤드, 오영환 역, 1991: 57)을 참조하길 바란다.

시한다.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사건은 ‘형식’이상인 것이다 사건은 양적일 뿐만 아니라 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나는 '사건(event)'이라는 용어를 하나의 연장 량에 있어 어떤 결정적 방식으로 서로 연관된 현실적 계기들의 결합체라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겠다. 하나의 현실적 계기(actual occasion)란 하나의 성원만을 갖는 극단적 유형의 사건(limiting type of an event)을 말한다(화이트헤드, 오영환 역, 1991: 167).”

시간적 세계의 제약된 현실적 존재로 여겨지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경험을 통해 새롭게 생성되는 ‘현실적 계기’로 구성되어 이름 붙여진다. 각각의 현실적 계기는 그에 선행하는(과거의 세계 전체인) 경험의 계기들을 통해 자신을 구성해 가는 과정으로서의 존재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자연은 시공간의 관점에서 사건들의 체계적인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상호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들의 생성이며, 시공간은 이러한 구조로부터 단지 추상화된 어떤 것일 뿐이다. 결국 화이트헤드는 진정한 자연이나 환경에 대한 이해는 사건들 사이에 구조가 있거나 혹은 사건들 내에 구조를 파악(prehension)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시공간으로 사건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들 사이의 관계에서 시공간의 구조를 파악할 것을 주장하며, 자연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가 사건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종류들의 대상들 반복이나 지속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사건은 자연의 구체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며 대상은 사건 내의 존재하는 어떤 패턴이나 한정요소를 의미한다(김영진, 2012: 148). 따라서 화이트헤드에게 자연과 환경은 사건으로서 실제적인 일어남이고 과정이다.

사건들은 그것들 속에 주요한 대상들이 위치된 후 일컬어지고 언어와 사유를 통해 사건은 대상의 뒤로 가려지며 대상들의 관계 역할에 지나지 않게 된다. 여기서 화이트헤드의 자연 철학과 [환경 철학]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무시되어온 대상들 배후에 숨겨진 사건을 구하는

것(김영진, 김상표, 2017: 137-8)에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적 존재가 자기를 구성하는 생성의 과정을 화이트헤드는 “파악”이라고 하였다.⁵⁾ 결국 자연의 모든 생명체도 인간이 가지는 감각 경험의 대상이 아닌 파악의 과정과 경험으로 느낌(feeling)이다.

화이트헤드에게 정신과 물질은 없고 오직 사건만이 존재한다. 자연은 우리의 지각과 분리되지 않는 것이어서 자연이란, “지각되는 모든 것”이다. 그리고 자연은 지속을 통해 지각되며 여기서 사건은 “시간의 한 시기를 통해 지속하는 한 장소의 특정한 성격”이다. 우리의 지각은 지속의 한 유형이며, 그것은 자연 속 사건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삶의 행위를 위한 자연 속에 초점을 가리키며, 바로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다른 사건들이 지각된다(김영진, 김상표, 2017: 136).” 화이트헤드는 대상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소리, 색, 냄새와 같은 감각 대상, 전자나 세포와 같은 과학적 대상, 그리고 밖에서 울고 있는 저 새와 같은 지각 대상이다. 자연의 대상들은 소리, 색, 냄새와 같은 감각 대상, 전자나 세포와 같은 과학적 대상들이다. 뒤에서 보다 상세히 서술하겠지만, 지각대상은 흄(D. Hume)이 일찍이 주장한 것처럼, 감각 대상들의 향들이 결합한 것으로 일종의 ‘경험의 습관의 산물’이다. 이와 같은 대상들이 사건 속에 진입하면서 일정한 질서체계가 이룬다. 그렇다면 사건과 대상의 결합은 어떻게 존속하는가? 존속을 위해서는 어떤 목적이 필요하다. 목적이 없다면, 결코 존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어떻게 존속과 목적을 결합할 수 있는가? 화이트헤드는 존속을 위해서는 ‘감염(infection)’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속하는데 성공한 모든 것은 그의 환경을 이 지속과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

5) “파악(prehension)”이라는 용어는 영어 사전에 없다. 하지만 화이트헤드 우주론과 그의 철학을 이해함에 있어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용어다. 간혹 ‘파악’은 포착하고 포섭하는 측면을 중시해 ‘포악’으로 번역되기도 한다(안형관, 1988: 70). 하지만 이 글에서는 ‘파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파악은 물리적 파악과 개념적 파악으로 이루지며, 반드시 의식을 수반할 필요는 없다. 존 콕(J. B. Cobb)은 화이트헤드의 파악은 내적 관계(internal relation)를 의미하고 두 개의 현실적 계기들이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하였다(Cobb, J. B., 2008: 31-33; 김재현, 2011: 42 재인용).

로 감염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화이트헤드, 1989: 148).” 또한 이 감염은 이제 ‘과악의 양식들이 서로를 반영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며, 존속이란 ‘사건 전체의 시간적인 부분들 속에 자기 패턴을 재현시키는 것에’ 성공했음을 지칭한다(화이트헤드, 1989: 25). 이렇게 화이트헤드의 감염은 나의 방식대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속 방식이 주변 환경에 설득력을 갖는다는 의미다(김영진, 김상표, 2017: 137-8). 우리의 몸도 하나의 사건이며, 그것은 일정한 지속 속에서 자연과 몸을 통한 지각이 하나의 영원한 대상을 과악과 느낌이 바로 인간이 자연과 환경을 대해야 하는 태도다.⁶⁾

“과학적 사고에 있어 객관성을 가장 열성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은 객관성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사실상, 하나의 학설을 옹호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의 역설을 역설한다는 것이다. 관심의 느낌을 떠날 경우, 우리는 단순히 학설을 들여다보기만 하고 그것을 지지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진리에 대한 열정은 관심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지속되는 관찰은 관념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주의를 집중시킨다는 것은 관련이 없는 것들은 무시해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와 같은 무시는 오직 어떤 중요성의 느낌에 의해서만 지속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화이트헤드, 1992: 21)”

2. 합생과 환경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근대 과학관에서 규정되는 자연과 환경은 ‘생명 없는’ 것이다. 화이트헤드에게 있어 생명이란 자연 속에서 활동,

6) 이것은 아펠(K. O. Apel)이 말하는 “인식인간학”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인식인간학에서는 모든 인식의 필연적 과정으로 우리는 몸의 참여를 과악함으로써 선험적 차원에서 인식의 조건을 무한히 확대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구승희는 자연인식에 있어서 몸의 선험성은 의식의 선험성과 상보적 관계에 놓여 있지만 몸의 선험성이 의식의 선험성을 넘어선다고 주장한다(구승희, 2001: 75-76를 참조).

응집성, 인과를 갖는 것이다(Whitehead, A. N, 1938: 148; 김영진, 2012: 333 재인용). 가장 저차원의 사건들에서 고차원의 사건까지 자연과 환경은 상호작용한다. 우리의 신체는 존재하기 위해 환경이 필요하며, 환경도 우리의 신체를 필요로 한다. 화이트헤드는 기존의 근대 과학과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체계에서 편리를 이유로 사용해 오던 이분법이나 이원론, 자세히 말하면 자연을 실재의 두 체계로 이분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는 인간과 비인간, 환경과 사회, 역시 새로운 방식으로 언제나 결합할 수 있다고 본다.⁷⁾ 물론 그 결합은 시공간의 영향 속에서 일시적으로 존속할 뿐이다. 즉 일자라고 부르는 결합된 존재들은 준-안정적인 상태에 있을 뿐이다. 화이트헤드에 의하면 사물이나 존재, 즉 우주가 ‘창조성(Creativity)’, ‘다자(Many)’, ‘일자(One)’라는 궁극의 요소(궁극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궁극의 요소들은 파악에 의해 대상이 주체에 포획되는 데, 다자가 일자에 포획되는 것이 바로 ‘합생(合生, concrescence)’이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새로운 일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합생 과정(concrescence process)’이다(김영진, 김상표, 2018: 35 참조).

“합생이란 다수의 사물들로 구성된 우주가 그 다자의 각 항을 새로운 일자의 구조 속에 결정적으로 종속시킴으로써 개체적 통일성을 획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화이트헤드, 1991: 387).”

결국 개별적 존재의 내적구조로서 다자가 일자와 결합되는 것이 바로 합생인 셈이다. 합생의 초기 위상은 문제되는 현실적 존재의 현실적 세계를 구성하는 다수의 이접(disjunction)[선언]적 존재들에 대한 별개의 여러 느낌으로 이루어진다. 그 이하의 위상에서 이러한 별개의 여러 느낌들은 그 현실적 존재의 만족이라 불리는 느낌의 통일 속에

7) 유기체와 환경이 우리의 사고 속에는 분리할 수 있지만 존재론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근대 이후 이원론적 사유를 극복하는 것도 환경 철학에서 중요한 일이다(김대식, 2003: 136, 이태호, 2019: 25에서 재인용).

하나로 결합해 들어가는, 즉 합생을 하게 된다(화이트헤드, 1991: 651). 합생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영원한 현재’의 경험이다. 모든 순간은 하나의 현재며, 이런 의미에서 무시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합생의 순간에서 과정의 매 단위는 주체적인 직접성을 향유한다. 다만 매 단위의 합생이 완성되면, 그것은 다시 과거가 되어 새로운 과정 안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합생은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에서 창조성은 근본원리다. 여기서 창조성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다자와 일자간의 관계에서 우선 임의의 순간에 우주는 이점으로 존재하는 다자다. 그리고 다자가 복잡한 통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물의 본성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일화, 즉 합생에서 비롯된 것은 진실로 새로운 것이다. 여기서 궁극적인 형이상학의 원리는 이점으로 주어진 존재들과는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존재를 창출해 내는 이점에서 연접[연연](conjunction)으로의 전진이다. 이 새로운 존재는 그것이 찾아낸 다자의 공재(together)인 동시에 또한 그것이 뒤에 남겨놓는 이접적인 다자속의 일자다(화이트헤드, 1991: 78).

이러한 합생과 공재의 개념은 생명이 없던 근대 과학과 실제 중심의 근대철학에서 환경과 자연의 오류에서 벗어나 생명적이고 창조적인 환경과 자연을 파악하게 되는 근간이다. 우리나라에 환경윤리의 이론과 쟁점으로 환경 철학 입문서의 저자로 알려진 데자르탱(J. R. Desjardins)의 용어로 빌려 말하면, 화이트헤드의 환경 철학은 근본적 생태주의의 입장을 매우 잘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데자르탱은 생태학적 입장을 피상적 생태주의와 근본생태주의로 구분하고 있는데, 피상적 생태주의는 인간중심주의적인 입장에서 현대의 환경문제를 비판하는 입장이다. 반면 근본생태주의는 근대의 인간중심주의[실체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인간과 식물 동물 대지[현실적 존재들]의 통일성[합생]과 자연과 사물들의 고유한 가치[과정과 지속]를 온몸으로 감득[파악과 느낌(긍정적 파악) 그리고 감연]할 수 있는 영성의 회복[궁극의 형이상학적 원리]을 통해서만 지금의 환경위기나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데자르탱, 1999: 293).⁸⁾ 이렇

게 화이트헤드의 환경 철학은 데자르탱이 말하는 근본적 생태주의와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환경에 대한 입장을 같이한다. 화이트헤드는 유기체가 환경과 상호 의존하고 하나의 과정이기에 “유기체”란 말을 사용한다. 그리고 각 유기체는 다른 유기체를 형성하는 환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공재한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한 신문 칼럼에서 소개된 숲 같은 나무를 들 수 있다.

“미국 유타주에 흰빛이 도는 수피로 마치 자작나무 숲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이름은 ‘트렘블링 포플러(trembling poplar; Populus tremuloides)’라는 혹은 ‘판도(Pando(Latin for "I spread out"))’라 불리는 떨림 아스펜 나무가 있다. 그 나무는 43ha의 면적에 걸쳐 4만 7,000그루가 살고 있다. 특이하게도 이 수많은 나무들이 모두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볼 수 있는 땅 위로 올라온 각각의 줄기 나이는 평균 130년이지만 땅속에서 하나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고 그 뿌리의 나이는 8만년이다. 전체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단일 유기체라 할 수 있다(이유미, 2019: 28면).”

3. 흙의 인과와 화이트헤드의 인과적 효능, 그리고 환경과 사회

흙은 자신의 『인성론』에서 원인(Cause)에 대한 정의내리고 있다.⁹⁾ 『인성론』에 나타난 흙의 인과정의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원인을 ‘다른 대상에 선행하며 그 대상과 인접한 하나의 대상이며, 여기서 이 대상과 유사한 모든 대상들이 다른 대상과 유사한 대상들에 대해 선행과 인접이라는 유사한 관계에 놓여 있다.’ 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원인은 다른 대상에 앞서서 그 대상과

8) 데자르탱의 문장에 [] 부분은 내가 의도적으로 화이트헤드의 용어를 삽입하였다. 이후에 []안에 기술기체는 나의 의도적인 삽입구다.

9) 흙은 자신의 『인성론』과 『탐구』에서 원인(Cause)에 대한 정의를 약간 상이하게 내리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인성론』에 나타나 있는 인과정의만을 다룬다.

인접하는 하나의 대상이며, 이 대상의 관념은 정신이 다른 대상의 관념을 형성하게 결정하도록 그리고 그 인상은 정신이 다른 대상의 보다 생생한 관념을 형성하게 결정하도록 다른 대상과 합일되어 있다(Hume, 1980: 170).”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흄이 의도하고자 했던 것은 그의 경험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인과성에 대한 우리의 통상적인 관념이 과연 정당한 위치를 가지는지의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주의 의도에 따라 앞의 인과정의는 이제 원인과 결과 간에 성립하는 필연성보다는 “시·공간의 인접성, 시간상의 연속, 그리고 항상적 연접”이라는 세 조건이 동시에 성립되는 것이 경험주의에서 정당화하는 인과 관계의 본질임을 말하고 있다. 이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윤용택, 1994: 48 참조). 여기서 인접성과 연속은 원인과 결과인 두 대상이나 혹은 사건들이 시·공간적으로 지나는 관계를 나타내며 항상적 연접은 개별적인 사건들 혹은 대상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러한 유사한 대상들 혹은 사건들 간의 집합 간에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에 성립하는 관계다(Hume, 1980: 173 참조).¹⁰⁾

화이트헤드 역시 흄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경험을 통해 인과에 접근한다. 하지만 흄이 말하는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은 박제된 사건¹¹⁾들

10) 흄의 인과정의 받아들인 에이어(A. J. Ayer)는 모든 개별적 인과 주장들은 일종의 인과 법칙 문장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C는 E를 일으킨다.” 라는 형식을 가진 모든 일반적 명제들은 “C일 때 마다, E이다(whenever C, then E).” 라는 형식의 명제들과 동치라는 것이다. 여기서 ‘~일 때 마다 (whenever)’ 라는 연사가 있는 곳은 C에 대한 유한한 수의 사례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수의 가능한 사례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Ayer A. J., 1975: 73). 흄의 인과정의에 대한 분석과 화이트헤드의 인과적 해석의 논의는 이 글의 중심 주제가 아니기에 여기까지 서술하고 다음의 연구 주제로 남기고자 한다.

11) 여기서 ‘박제된 사건’이란 화이트헤드가 과학적 유물론이 생명이 없다는 말한 것의 의미를 살리고 화이트헤드의 사건 개념과 구분하기 위해 내가 사용한 용어다.

간의 인접이나 계기 또는 항상적 연결에 지나지 않는다면, 인과나 인과적 추론은 언제나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된다. 그렇기에 화이트헤드에게 흠 역시 잘못된 구체성의 오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인과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사실 우리의 구체적인 경험들은 비활동적인 사건이 아니라 활동적인 사건들이다. 이 사건은 우리의 환경과의 고유한 관련성을 가지며 모든 것은 유기적으로 상호 관계성을 가진다. 인과적 추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험의 이러한 성격을 우선 밝혀야 한다(김영진, 2012: 176).

화이트헤드가 흠의 인식의 실마리와 인과론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과적 효과성(casual efficacy)다. 지각의 순수 양태 중 하나는 인과적 효과성이고, 다른 하나는 현시적 직접성(presentational immediacy)이다. 여기서 말하는 현시적 직접성이란 세계의 연장적 관계에 대한 명석 판명한 의식을 포함하고 있는 지각의 양태며, 이 양태에서 동시적 세계는 연속체로서 파악된다(화이트헤드, 1991: 147). 이들 중 인과적 효과성이 현시적 직접성보다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이다. 왜냐하면 인과적 효과성은 과거를 계승하는 양태이기 때문이며, 그것은 모호하고 불분명하면서도 정서적인 힘에서는 결실한 여건들을 현재까지 전달하는 양태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각할 때, 이 둘의 순수 양태가 상호 결합하여 일상적인 삶의 양태인 상징적 연관(symbolic reference)이라는 복합적 지각을 형성하게 된다. 상징적 연관은 인간의 극히 민첩한 지각을 특징으로 하는 혼합된 양태의 지각으로 인과적 효과성의 지각과 현시적 직접성의 지각 통합이다.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신체와 관련된 근원적인 지각 양태인 인과적 효과성을 흠은 알지 못했으며 그래서 사건 간의 본질적 관계를 놓친 인과론일 뿐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흠은 인상과 관념 간의 인접과 계기 그리고 항상적 연결 이외에는 세계의 어떤 인식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화이트헤드에게 있어 인상은 매우 복잡한 것이며 인상 자체가 근원적인 지각의 양태가 될 수 없다. 그가 인과적 효과성과 현

시적 직접성의 결합으로 말한 상징적 연관의 사례로 제시한 회색 돌로 이야기를 전개해보자. 우리가 회색 돌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시지각을 의식에 넣었을 때 거기에는 단순한 시각 이상의 것과 관련이 있다. 그 돌은 그것의 과거와 관계를 맺고 있고, ‘돌’은 명백히 역사를 가지고 있다(화이트헤드, 1991: 243). 동시에 그 돌은 미래도 가지고 있는데 돌이 작으면 돌팔매로 사용될 수 있고, 그것이 크면 의자로도 사용될 수 있다. 돌에 대한 인과적 효과성의 지각 양태와 현시적 직접성의 지각 양태의 혼합은 그 돌을 공간의 동시적 영역에서 분명 자리 잡고 있는 동시에 과거와 미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속하는 존재로 지각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상과 사건의 지속하는 존재의 지각은 지각자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 역시 과정에 있으며 유기체다.

“현실적 존재는 그 여건에 내재하는 잠재능력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여건은 제한하면서 동시에 제공한다. 바로 이러한 확설로부터, 유기체의 성격은 그 환경의 성격에 달려 있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환경의 성격은 공동으로 그 환경을 구성하는 현실적 존재들의 여러 사회의 성격들의 총화다. ... (중략) ... 환경내의 사회는 그 환경의 질서적 요소를 구성할 것이며 그 환경내의 비사회적인 현실적 존재들은 그 환경의 혼돈적인 요소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화이트헤드, 1991: 226).”¹²⁾

이러한 유기체 철학은 우리가 환경문제를 대하는 실천적 태도에 있어서 북친(M. Bookchin)이 주창했던 사회 생태론과 연관 지어 논의할 수 있다. 그의 사회 생태론은 자연과 생태계 또는 생태계의 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측면에 강조점을 두고

12) 화이트헤드는 『과정과 실제』에 등장하는 ‘환경(environment)’의 개념을 대부분 사회와 연관지어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정과 실제』 4장 “유기체와 환경”은 유기체 철학의 인식론과 자연의 질서에 대한 지각, 그리고 그 지각 속에 환경과 사회를 통일시키면서 정합적인 우주론을 구축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있다. “사회적”이라는 형용사를 생태학에 첨가함으로써 사회가 자연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Bookchin, 1987: 16). 바로 이러한 측면은 자연에 대한 지각의 양태를 통해 환경이 구조를 갖는 사회, 즉 살아있는 사회로 과정에 놓여있음을 강조한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이 맥락을 같이한다. 화이트헤드에 의하면 토마토와 토마토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토마토 세포의 사회] 하나하나는 분명 살아 있다. 살아있는 결합체들이 지배적일 때 그 사회는 살아 있는 것이다(화이트헤드, 1991: 213-214).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사회는 살아있는 계기들이 그 속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에 따라 살아있음의 정도가 달라진다(화이트헤드, 1991: 615). 이것을 환경문제로 확대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살아나려면 그 환경과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바로 이점이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이 환경의 실천철학, 복친이 비판한 환경관리 윤리[인간 중심적 환경윤리]를 넘어서고 생태를 위한 노력이 지배의 문제를 포괄하지 않는다면 그 움직임은 단지 생태 봉사운동에 지나기 않기에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사회 생태론의 주장에 실마리가 될 수 있다(구승회 2001: 162-163을 참조). 사회 생태론은 비인간에서 인간을, 자연에서 사회를 도출하는 작업에서 불변의 법칙성을 찾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은 사회에 환경윤리, 즉 자기 선택과 진화를 통한 자유와 개체성의 보장에 근거한 상이성과 참여의 원리를 제공해 주며 지배와 위계질서를 비교, 변경하는 패턴을 제공하고, 기존의 위계질서와 지배를 부정하도록 해준다. 따라서 사회 생태론은 과정의 철학[유기체 철학]이며, [환경은 그것을 구성하는 사회의 총화이기에, 또한 인간도 지구의 환경의 사회이기에] 참여의 철학이라고 주장된다(최병두, 1995: 77; 구승회, 2001: 160 재인용).

Ⅲ. 생태와 문명의 교차점에 있는 유기체 철학

서구의 산업화이든 우리의 산업화이든 근본 바탕에는 도구적 이성 중심에 입각한 과학 기술주의와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다. 한마디로 근대 산업 문명의 근본적 이념은 이성에 바탕을 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데카르트적 합리성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달이라는 개가를 올렸지만 동시에 지구상의 모든 생명과 인류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다. 서구식 산업주의가 인류의 경고를 던져주고 있다. 여기서 산업 문명의 성장적 이념의 대안의 절실함이 바로 생태 철학(ecological philosophy)의 태동 배경이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부터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의 하나가 바로 ‘생태’일 것이다. ‘생태 하천’, ‘생태 체험’, ‘생태 축제’ 또는 ‘에코 토피아’, ‘에코 시티’ 등 수 많은 단어 앞에 ‘생태’라는 말을 붙여 사용한다. ‘생태’라는 말이 이렇게까지 대중화되기 전에 우리는 ‘환경’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했었다.¹³⁾ 물론 오늘날 사용되는 방식에서 ‘생태’라는 용어는 환경과 인간이 개별적인 것이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다. 생태 철학을 기반으로 발생한 생태주의는 성장을 우선시하던 산업 문명을 넘어서는 탈-근대적 문명 전환 운동을 지향한다. 그래서 생태 철학은 인류문명의 지속가능성과 생명 가치의 문제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박길용, 2017: 69).

최근 우리나라에서 20세기적 산업 문명을 넘어 생태 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여기서 생태 문명은 이것은 산업 문명(industrial civilization)에 대비되는 의미에서 이름 붙여진 것이다. “생태 문명”이라는 말에서 ‘생태’와 ‘문명’의 개념

13) 사실 ‘환경(環境)’이란 그것을 한자 그대로 정의하면, 주변의 곳을 뜻하기 때문에 중심인 곳을 어떤 곳을 전제하는 단어다. 여기서 주변이란 ‘자연’을 말하고 중심에는 ‘인간’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환경보호란 결국 인간간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수 있으며 인간중심주의적 용어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생태(生態)’란 자연계의 모양이라는 의미로 단어 속에는 ‘환경’과는 전혀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 가지는 이질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 용어는 문명이 견딜 수 있도록 조직하는 생태적 방법을 찾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생태 문명의 세계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명 중심주의’ 혹은 ‘지구 중심주의’ 인간 생명만이 아니라 생태계 모든 생명의 존재를 중시하는 문명을 말한다. 물론 화이트헤드는 “생태 문명”을 말한 바 없다. 하지만 그는 진리, 아름다움, 예술, 모험, 평화로 채워지는 사회를 ‘문명’이라고 하였다. 생태와 문명과의 교차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생태 문명은 문명에 생태를 추가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인간과 사회를 넘어서 생명계 전체를 향한 지속 가능한 문명의 조화와 다양한 구현이 핵심이다.¹⁴⁾ 특히 생태학(ecology)과 문명(civilization)의 만남은 생태 중심주의와 기술지향주의를 포괄하는 지구공동체 지속에 대한 구상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생태 문명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학자들 중 한 명이 바로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과 과정 신학 분야에서 저명한 존 캅(J. B. Cobb)이다. 또한 그의 동료인 필립 클레이튼(P. Clayton)의 주장에 따르면, 생태 문명은 생태학적 사고(ecological thinking)며 동시에 문명화된 변화(civilizational change)다. 그는 생태 문명의 중요한 비전의 하나로 생태적 사고를 제시하고 있다(Clayton, P., 2018: 296). 여기서 생태적 사고란 환경전체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과학, 철학, 정책들을 모두 지칭하는 말한다. 생태는 모든 것의 상호 의존성과 함께 시작한다. 건강한 생태계는 그 생태계의 모든 유기체 사이의 적절한 균형에 달려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또한 환경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생태는 그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제공한다. 건전한 생태적 원칙에 기초해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 정책은 사회를 구조화할 것이고, 그 사회에 속한 모든 그룹 사이에서

14) 여기에서 생태의 의미는 지속가능성으로 확장될 수 있다. 특히 생태와 문명의 만남은 생태중심주의와 기술지향주의를 포괄하는 지구공동체 지속에 대한 구상을 기반으로 한다. 필립 클레이튼 교수에 의하면, 그것은 생태학적 사고(ecological thinking)이며 동시에 문명화된 변화(civilizational change)이다(전철, 2018: 312를 참조).

균형이 회복될 것이다. 이미 화이트헤드가 『관념의 모험(Adventures of Ideas)』에서 말한 대로,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너무나 근본적이어서 인식하지 못한 채 넘어가곤 하는 이미지와 관념이 있었다. 그 이미지와 관념은 그로 인한 피해자들조차도 그러한 관념을 공유할 위험이 있다.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이 관념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문화적 서사(cultural narrative)가 달라져야 하기에 문명적 수준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태적 위기의 근원 역시 ‘자연은 한 하고 통제하고 지배 가능한 대상이고 인류는 자연계를 지배할 권리와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우리들의 관념에 닿아 있다고 생각된다(정건화, 2018: 202).

생태 문명은 근대과학의 패러다임을 생태주의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때만 이루어지는 배타적 방향성만은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학기술을 미래 사회공동체에 기여하는 공적 혹은 시민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는 작업 또한 생태 문명적 감수성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재구성을 위한 중요한 방향설정 가운데 하나가 생태 문화적 전환이며 그에 따라 지금의 환경문제 역시 생태와 문명의 교차점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교차점을 연결하는 이론적 배경에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이 있다. 지금의 환경과 생태 위기는 우리가 익숙한 사회, 우리가 익숙한 문명의 ‘급진적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산업사회, 산업문명의 전환은 실로 지난 시대의 과제다. 지금은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 새로운 문명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그 중심은 생태 문명, 생태 친화적 문명이 될 수밖에 없다.

IV. 결 론

인류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문명적 전환기에는 언제나 새로운 생각, 새로운 철학,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환경

을 기계론보다는 유기체로, 도시보다는 지역사회로, 산업 문명보다는 생태 문명으로 바라보아야 할 시기다. 또한, 직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철학적 운동이나 환경교육 방향성 제시, 생태 문명을 동반한 국제적 움직임과 환경 정책적 제안의 근간으로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환경 철학으로 재조명해 본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앞에서 전개했던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을 근본 생태 주의적 입장에 적용한 해석과 사회 생태론을 지지하는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적 영감은 “첫째, 인간은 자연생태계를 존중하고 그에 대한 행동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간관계 또한 지구와의 상호보완적인 상호연관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생태 문명주의자들의 요건들이나 생태 문명의 세계관¹⁵⁾을 강화하는 실천적 논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미 나는 앞에서 근본적 생태주의 입장이나 사회 생태론 입장을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이 잘 해석될 수 있음을 논하였다.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에서 자연의 모든 생명체는 인간이 가지는 경험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나름의 파악의 과정과 경험을 가지는 내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지하게 된다. 또한 시·공간적으로 상호 연결된 자연 내의 모든 유기체들은 자기의 존재를 세계와 분리하지 않고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내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가지고 주어진 생태계 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¹⁶⁾

15) 2018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생태전환 파주시 선언의 전문에서 생태 문명의 세계관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는 생명과 인간을 우주 전체의 변화 과정의 일부로서 체험하는 경이로움 속에서 인식하고 함께 공존하는 생태 문명을 추구한다. 산업문명은 인류에게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다른 비인간 주체들을 대상화하고 우리의 터전인 지구에 대한 존중심을 상실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기존 문명의 심대한 위기를 맞이하여 이제 다시 인간은 지구와의 관계에서 상호 연결된 존재임을 뚜렷이 각성하는 의식을 담은 제도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인간과 지구의 상호 호혜적 고향 관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파주시, 2018: 560).”

16) 심층 생태학(Deep Ecology)을 주창한 아른 네스(A. Naess)는 자연보존운동을 지향하는 표층생태주의가 여전히 인간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소아(ego)에

따라서 인류문명의 지속가능성과 생명 가치의 문제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생태 철학과 생태 문명의 이론적 근거로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그의 철학에서 제시하는 주요개념들의 환경 철학적 해석은 화이트헤드의 환경 철학의 시작이다.

국한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심층생태학은 생물권 전체와의 일체 의식을 경험하면서 지구 안의 모든 것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최대의 대아(Self)를 실현할 수 있는 세계관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과 생태 철학의 연관성 잘 드러내는 부분이다.

참고문헌

- 구승희(2001), 『생태 철학과 환경윤리』, 동국대 출판부.
- 김홍기(2018), 「생태교육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생태 문명 국제 컨퍼런스 2018』, 지구와 사람, 373-378.
- 김영진(2012),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 그린비.
- 김영진, 김상표(2017), 「화이트헤드의 느낌의 윤리」, 『철학논총』, 90, 127-163.
- _____ (2018), 「합생적 기업가정신과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 『철학논총』, 93, 27-61.
- 김재현(2011), 「화이트헤드 철학과 교양교육」, 『교양교육연구』 제 5권 1호, 37-66.
- 박길용(2017). 「환경문제와 치유의 행복」, 『철학논집』, 50권, 1호,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67-102.
- 박찬국(2004), 『환경문제와 철학』, 집문당.
- 안형관(1988), 『화이트헤드 철학의 이해』, 이문출판사.
- 양형진(2010), 「과학의 발전과 세계관의 변화」, 『물리학과 첨단기술』, 한국물리학회, 42-44.
- 윤용택(1994), 「흙의 '인과관계' 분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철학』, 한국 철학회, 37-65.
- 이유미(2019), “나무처럼 나이들기 2”, 한국일보, 1월 23일자, 23면.
- 이태호(2019), 「화이트헤드 유기체 철학에서 유기체와 환경과의 관계」, 『환경 철학과 화이트헤드 철학의 만남(추계학술대회 발표집)』, 한국환경 철학회 & 한국화이트헤드학회, 25-36.
- 전철(2018), 「종교와 과학의 거울로서의 생태 문명」, 『생태 문명 국제 컨퍼런스 2018』, 지구와 사람, 311-314.
- 정건하(2018), 「생태문명적 전환과 사회적 경제」, 『생태 문명 국제 컨퍼런스 2018』, 지구와 사람, 201-210.
- 과주시(2018),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생태적 전환 선언[과주선언)」,

- 『생태 문명 국제 컨퍼런스 2018』, 지구와 사람, 550-563.
- Ayer, A. J.(1975), *Language, Truth and Logic*, Pelican Books.
- Clayton, P.(2018), 「자연과 과학의 관계 재정립」, 『생태 문명 국제 컨퍼런스 2018』, 지구와 사람, 289-298.
- Bookchin, M.(1987), *The Modern Crisis*, Black Rose Books Ltd.
- Cobb, J. B.(2008), *Whitehead Word Book: A Glossary with Alphabetical Index to Technical Terms in Process and Reality*, Claremont: P&F Press.
- Hume, D.(1980), *A Treatise of Human Nature*, edited by Selby-Bigge, Oxford: Clarendon Press; 국내 번역은 『오성에 관하여』, 이준호(1994) 옮김, 서광사.
- Kuhn, T.S.(1970),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2nd edn, Univ. of Chicago Press.
- Spaemann, R. & Low, R.(1985), *Die Frage Wozu? Geschichte und Wiederentdeckung des teleologischen Denkens*, München/Zürich, Piper-Verlag.
- Whitehead, A. N(1920), *The Concept of Na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38), *Modes of Thought*, New York: Macmillan; 국내 번역은 『사고의 양태』, 오영환 & 문창욱(1992) 옮김, 믿음사.
- (1989), 『과학과 근대세계』, 오영환 옮김, 서광사.
- (1991), 『과정과 실재』, 오영환 옮김, 믿음사.
- Yuval Noah Harari(2017), 『호모데우스』, 김명주 옮김, 김영사.

【Abstract】

The Cornerstone for the Environmental Philosophy of A. N.
Whitehead

Choi, Hyun-Cheol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lay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applying A. N. Whitehead's philosophy to environmental philosophy and ethics as part of efforts to find solutions to the environmental problems surrounding us now. Applying A. N. Whitehead's organic philosophy to environmental philosophy, the road to lay the foundation of his environmental philosophy starts in the context of understanding the whitehead's philosophical journey from mathematics and logic to science, from science and science philosophy to metaphysics, as his terms, and as an organism. Already, Whitehead's philosophy of organisms consists of compelling logic and concepts that can be applied to environmental philosophy and fully implies the part that agrees to practical arguments on environmental issues. To apply A. N. Whitehead's philosophy to environmental philosophy and ethics, I first develop discussions that relate the main concepts that make up his organic philosophy to nature or environment. Also in this article, I summarize A. N. Whitehead's concept of nature and environment, which appeared in A. N. Whitehead's representative book, "*Process and Reality*" and other major books, and finally, as the current environmental movement shifts to the center of ecological philosophy, how whitehead's organic philosophy becomes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current movement of ecological civilization.

Key words : Organic philosophy, Concrescence Casual Efficacy,
Ecological Civilization.